

# 발레 역량(Ballet Competency)의 개념화를 위한 체계적 문헌분석\*

박재홍 한성대학교 · 홍애령\*\* 상명대학교

본 연구는 발레 무용수 및 학생의 교육, 선발,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초개념으로서 발레 역량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무용 대중화의 선두 장르로 여겨지는 발레는 무용수의 신체적 기량과 월등한 테크닉이 곧 실력으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실기를 기반으로 하는 무용연구에서 무용실기와 관련된 테크닉과 메소드에 관해서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발레 무용수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구된 바가 미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레 역량의 개념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예술 분야의 역량과 무용 역량의 개념을 바탕으로 시사점과 전제사항을 파악하는 체계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수준에서 발레 역량의 개념 및 하위 요소(발레신체 및 기술, 발레지식, 발레감성, 발레인성)를 제시하고 이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발레, 역량, 발레역량, 무용수, 전문성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무용계에서 발레는 대중화의 선두주자로 여겨진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무용을 이야기할 때 직관적으로 발레리나의 이미지를 연상하고, 이들의 신체가 보여주는 우아한 이미지는 '아름답다'는 미적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인식은 공연의 흥행으로도 연결된다. 공연예술계에서 드물게 스테디셀러로 여겨지는 작품 역시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와 같은 클래식 발레 작품이다. 일반 공연에 비해 발레 공연은 여성, 주부, 학생, 높은 교육 수준의 관객이 관람하는 경향을 보인다(박재홍, 2007). 이들 관객은 발레 작품의 의미, 무용수의 기량, 연출에서 감동을 느끼는데, 감동의 근원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심미적 욕구, 정서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에 기인하고 있다(구희영, 2015). 즉 관객은 발레공연의 감상, 간접체험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연의 성과는 성인발레 수업의 인기로 이어졌다. 전공자가 아님에도 부라보 발레 페스티벌, 발레 메이트 페스티벌과 같은 성인발레 대상의 축제공연, 콩쿠르에 참여하는 인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간접체험에 머무른 소극적인 참여자에서 직접체험을 시도하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길 희망하는 발레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혼합장르화의 영향으로 전문 공연예술로서 무용의 신체성은 약화되는 반면, 개인 의미 추구의 차원에서 직접 체험을 통한 움직임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박재홍, 2005).

\* 이 논문은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 교신저자 : innodance@naver.com

한편에서는 전문 무용수들의 활약이 비약적으로 두드러지고 이를 기틀삼아 한국 발레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 입상하는 무용수,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안무가들의 작품이 연이어 선보이고 있으며, 국내의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 발레협동조합의 민간발레단, 지역사회기반 발레단에서도 독자적인 공연과 안무의 기회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공연예술계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발레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발레 무용수들의 활동과 실력을 학술적,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제시하는 연구 부문은 발전이 미진하다. 무용수는 미적 가치의 전달, 미적 가치의 창조, 미적 표현의 구현이라는 상호 연계된 미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기능들이 어떻게 수행되는가에 따라 무용공연의 예술적 성공이 결정된다(황인주, 2012). 미적 표현은 무용수가 행하는 동작과 기술을 통해 전달되며, 이는 무용수가 공연이나 연습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경험한 것을 통합하여 드러냄으로써 발휘된다. 그러나 각 무용수들이 어떻게 기량을 늘려가고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가는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지거나 전해지지 않는다. 막연한 동작연습으로 발레 무용수들의 역량 개발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흑자는 드레퓌스(Dreyfus)의 전문성 이론이나 부르디외(Bourdieu)의 실천이론이 무용수들의 몸으로 구현되지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실천적인 능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Bailey & Pickard, 2010). 이는 그간의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 학문적 배경이나 이론을 토대로 무용수들의 능력을 가시적,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발레는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 한국의 발레 연구는 1966년 오춘자가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회 학술지 『무용』에 게재한 「고전발레의 기법」을 최초로 시작되었다. 발레연구의 동향을 살핀 최근의 연구에서 시기별 발레연구의 주요개념들을 살펴보면, 1기(1966-1979)는 발레 테크닉의 기본원리와 역사, 2기(1980-1989)는 발레 작품의 미학적 분석과 비평, 3기(1990-1999)는 기능해부학, 역학, 생리학, 심리학에 기초한 발레 테크닉과 무용수에 관한 과학적 분석, 4기(2000-2009)는 사회학, 교육학에 기초한 발레 참여와 교수방법, 5기(2010-2019)는 공연예술로서의 발레와 발레교육을 핵심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홍애령, 박재근, 도소이, 전은수, 2019). 종합해보면 지금까지의 발레 연구는 무용분야의 전공 영역으로서 주제별 연구흐름의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물에 대한 질적 분석이 어려우며, 선행연구에서 얻어야 할 자료들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 발레만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문치빈, 2007; 이수연, 2018). 특히 발레는 무용의 특성상 많은 연구자들이 무용 기능학에 관련된 동작분석, 기능중심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발레 영역에서 특수화된 내용과 주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김동곤, 2008). 발레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발레영역의 연구자들이 학위과정 이후에도 현장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를 꾸준히 해나가기를 촉구하고 있다(김경영, 2007; 김정민, 2007).

2000년대 이후 발레 연구는 발레를 공연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이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공연과 교육에 관한 연구로 양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발레를 수행하는 무용수나 학생들이 어떠한 역량을 지녀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이는 무용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용학 연구에서 역량이나 전문성의 개념은 2010년 이후로 시도되기 시작했으며 그중에서도 무용교육과 관련하여 관심을 받아왔다. 무용교육자의 전문성과 교수역량에 관한 연구들이 이론적, 경험적 차원에서 수행되어 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지녀야 할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수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은혜, 김지영, 권재윤, 2018; 김혜련, 최창환, 2018; 문영, 서예원, 2018; 송혜순, 황명자, 2017; 홍애령, 2013). 그러나 공연예술현장에 몸담고 있는 무용수에게 필요한 역량은 상대적으로 학술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다. 무용수가 어떠한 기량을 갖추고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되며 선발되는지에 관해 더욱 엄정한 기준이 요구되는 반면, 이를 위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근거를 모색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홍애령, 석지혜, 임정신, 오현석,

2011). 그렇기 때문에 무용 콩쿠르, 대학 무용학과 학생 선발, 무용단의 무용수 선발 등에서 예술 특유의 '주관성에 입각한 평가'라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소수의 영재 판별도구나 국제 콩쿠르의 심사기준 등이 소개되고 있지만, 대개는 기술의 영역과 예술의 영역으로 양분된 정량적 점수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결정적인 판별은 평가자의 주관성에 좌우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 무용의 대중화를 이끌어내고 실기 기술의 가시화가 두드러진 발레라도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발레 역량 개념의 정립이 요청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발레 무용수 및 학생의 교육, 선발,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초개념으로서 발레 역량에 대한 이론적, 체계적 개념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용 대중화의 선두 장르로 여겨지는 발레는 무용수의 신체적 기량과 월등한 테크닉이 곧 실력으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실기를 기반으로 하는 무용연구에서 무용실기와 관련된 테크닉과 메소드에 관해서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발레 무용수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진하다. 이 연구에서는 발레 역량의 개념화를 위한 시사점과 조건들을 파악하고자 예술 분야의 역량과 무용 역량의 개념을 바탕으로 체계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레 역량의 개념과 하위요소를 이론적 수준에서 제시하고 이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레 역량의 개념화를 위한 예술, 무용 및 발레관련 선행연구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한 발레 역량의 개념과 하위요소들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체계적 문헌분석

체계적 문헌분석(Systematic Review, SR)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연구들을 수집, 분석하여 문헌에서 제시한 방대한 결과를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와 통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EBM)에서 현장 실천가와 체계적인 연구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Lewis & Orland, 2004)으로 시도된 것이 최근 교육학, 심리학, 경영학 등에서 이론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학 및 보건, 간호학 분야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로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핵심질문 정의, 문헌검색, 문헌선택, 문헌의 비뮌립 위험 평가, 자료 분석 및 결과 제시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메타분석과 함께 병행되고 있다(안형식, 김현정, 2014).

그러나 교육학 및 심리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체계적 문헌분석'으로 번역, 사용하며 문헌자료의 수가 소수인 경우가 많고 이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내용분석과 범주분석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백종면, 2014; 이옥선, 최의창, 정현수, 윤기준, 2017; Cohen, Manion & Morrison,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용 및 발레연구의 특성상 양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연구자들의 내용분석을 통한 핵심질문 정의, 문헌검색, 문헌선택 및 질적 정제, 자료 분석 및 결과 제시의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방법상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대신 체계적 문헌분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발레 역량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행연구가 국내외에서 미진한 까닭에 이 연구에서는 예술, 무용 및 발레 분야 연구에서 역량에 초점을 둔 문헌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에 국내연구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196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발레'를 검색한 결과, 2,271편의 학위논문과 1,647편의 학술논문, 4,195편의 단행본이 출간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발레 역량에 관한 핵심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최종 선택된 다음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주제 및 내용에 관한 체계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표 1>과 같이 총 20편의 문헌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해외문헌자료는 구글 학술검색(Google Scholar)을 통해 검색되는 자료 중에서 선정하였다.

표 1. 최종 분석대상 문헌자료 목록

순	저자(연도)	연구제목	구분	출처
1	이슬기(2019)	무용수의 역량에 대한 무용전공 대학생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2	김지안(2017)	직업발레무용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의 발레교육 발전방안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3	정은정(2017)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 핵심역량의 경험적 탐색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4	이윤경(2016)	역량기반 초·중등 무용교육과정 내용체계 개발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5	홍애령(2013)	뛰어난 발레교육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 발레교수전문성의 재개념화를 위한 발달과정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6	임은주, 김대진(2018)	중·고등학교 무용전공 희망학생들의 전문무용역량에 관한 인식 탐색	학술논문	한국무용교육학회지
7	차은주, 안병순(2017a)	무용 감성역량 모델 개발 연구	학술논문	한국체육학회지
8	차은주, 안병순(2017b)	지식기반사회에서 무용 인적자원의 역량 증진 전략	학술논문	한국체육학회지
9	홍애령(2014)	발레교수전문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 탐색	학술논문	한국체육학회지
10	박재홍(2013)	발레 스탠스에서의 힘 흐름	학술논문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11	박재홍(2012)	발레 스탠스의 목적과 단계별 수행	학술논문	무용역사기록학
12	황인주(2012)	무용공연에서 무용수의 미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무용역사기록학
13	최의창, 홍애령, 김나이(2012)	발레교육의 내용으로서 "발레정신"의 개념과 구성요소	학술논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	홍애령, 석지혜, 임정신, 오현석(2011)	무용수의 전문성 발달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무용역사기록학
15	김정숙, 이병준(2009)	무용(교육)에서 요구되는 예술적 역량 척도요인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학술논문	무용예술학연구
16	이병준, 김정숙(2009)	무용수가 인지하는 예술적 역량 연구	학술논문	예술교육연구
17	이강순(2008)	무용에서의 문화적 역량	학술논문	문화예술교육연구
18	Noice & Noice(2006)	Artistic performance: acting, ballet, and contemporary dance	단행본	The cambridge handbook of expertise and expert performance
19	Ureña(2004)	Skill Acquisition in Ballet Dancers: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berate Practice and Expertise	박사학위논문	플로리다주립대학
20	Poon & Rodgers(2000)	Learning and remembering strategies of novice and advanced jazz dancers for skill level appropriate dance routines	학술논문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 Ⅲ. 문헌분석에 기반한 발레 역량(BC)의 개념화

#### 1. 역량의 개념과 요소

역량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통칭하고 있다. 한글사전에는 “어떤 일을 감당하여 해낼 수 있는 힘”, 영어사전에는 “효과적이고 유능하게 무엇인가를 수행하는 능력”(the ability to do something well or effectively)이라고 규정되어 있다(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 2007). White(1959)가 「동기 부여의 재고: 역량의 개념」(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에서 역량을 인간이 지닌 개인적 특성(human trait)으로 언급하면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목되고 발전하기 시작했다. 역량의 개념은 전문성과 마찬가지로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이나 의도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 연구자별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초기 역량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McClelland(1973)는 「지능대신 역량 검사하기」(Testing for competency rather than intelligence)에서 전통적인 지능검사를 비판하고 검사가 문항에 대한 반응 능력뿐만 아니라,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능력은 직업적인 능력이 아니라 리더십이나 대인관계 기술처럼 사회적인 성취를 통해 삶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McClelland, 1973). 그가 제시한 역량의 개념은 실제 삶에서 수행하는 것들을 성공적으로 우수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정 분야에 발휘되는 능력으로 인식되었던 역량의 개념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위한 핵심적인 자질로서 재인식될 수 있었던 것은 1997년부터 OECD에서 수행된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 때문이다(소경희, 2007). 이 프로젝트는 복잡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역량의 개념에 주목하여 “특정 맥락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사항들을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인지적 능력, 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들을 활용하는 총체적 능력”으로 보았다(Rychen & Salganik, 2003). 또한 무수히 많은 역량 가운데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역량을 핵심역량(key competence)으로 명명하고, 상호작용 능력, 자율적인 행동능력,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소경희, 2007).

최근 역량의 개념은 특정 직무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능력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삶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포괄적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Bolton & Hyland, 2003). Mirabile(1997)은 우수 성과자와 평균 성과자를 구분하는 역량의 요소로 KSAOs(knowledge, skill, ability, other characteristics)의 네 가지 차원을 구분하였다. 즉 역량이 우수한지 평균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지식, 기술, 능력, 기타 특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의 역량 요소로 여겨지며 적용되고 있다.

#### 2. 예술, 무용 및 발레 연구에서의 역량

예술, 무용 및 발레 연구에서 역량은 전문성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다. 두 개념은 등장한 시기가 비슷하지만 전문성의 개념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 반면, 역량의 개념은 인적자원, 교육학 분야에서 2010년대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드러난 핵심역량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량 개념이 전문성에 비해 본인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실무능력이 강화된 개념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발레 역량(Ballet Competency, BC)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먼저 예술 분야에서 역량은 ‘예술적 역량’으로 규명된 바 있으며, 이는 각 예술영역에서 필요한 기능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며, 여기에는 창의력, 수용력과 표현력, 모방능력, 재현능력, 현실감각, 상상력, 미적 판단 능력, 감성능력, 미디어 역량 등의 구성요소가 포함된다(이병준, 김정숙, 2009). 이러한 예술적 역량은 분

야별 하위 역량과 범분야별 하위 역량이 존재하는 데 그 중에서도 무용 분야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로는 몰입(호기심, 열정, 목표, 지적수준, 통찰력), 감성(감성적 지각, 신체성, 표현력, 경험), 모방(모사, 연습, 재창조, 응용, 노력), 미적성찰(수용력, 비평력)이 제시되었다(김정숙, 이병준, 2009).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무용교육 현장에서 창의성과 예술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예술적 역량 요인들에 대한 무용교육 문화 장르에서의 창의력 유발과 긍정적인 심리현상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예술적 역량의 중요함을 강조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위미나, 이병준, 2008).

다음으로 무용 역량은 2008년부터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전문성, 역량, 핵심역량, 감성역량 등 다채로운 개념으로 접근되어 연구되고 있다(차은주, 안병순, 2017b).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무용관련 역량은 초·중등학교의 체육과 역량에서 '신체표현역량'(교육부, 2015b), 고등전문교과I 예체능계열 '무용분야 핵심역량'으로는 무용창의성, 무용동작성, 무용신체성(교육부, 2015a)의 3가지 하위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 개념들은 초·중등학교에서 비전공학생과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제시된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 역량 개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에 적용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가장 최근 연구에서 이슬기(2019)는 무용수의 역량을 신체 역량, 전문성 역량, 인성 역량, 환경 역량의 4가지로 구분하고 무용수의 신체를 반영하는 신체 조건 및 체력 및 관리 요인, 무용수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기능수행, 창의성, 무용사고력, 표현 및 소통능력, 그리고 사회성과 태도, 무용사랑을 포함하는 무용수의 인성, 경제력과 인맥 등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는 무용수의 환경 요인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이슬기, 2019).

이상의 분석대상 연구들을 통해 예술, 무용 및 발레 역량의 개념은 합의적으로 규명되기보다 하위 요소들을 구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역량의 하위 요소들은 2개, 3개 혹은 4개로 구분되었는데 대개는 2분법적 구성에 기반한 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2분법적 구성이란 무용 및 발레 역량을 예술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요소로 구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Poon과 Rodgers(2000), Noice와 Noice(2006)는 무용수의 전문성을 표현과 기술의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최고 수준의 무용수는 예술가(artist)이자 동시에 기술자(technician)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레 전문성을 다룬 연구(김지안, 2017; 홍애령, 2013)에서는 그것이 발휘되는 측면에 따라 발레를 잘하는 것과 관련된 "발레수행", 발레를 잘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발레교육"으로 구분하고 하위 요소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기능적 전문성'은 발레를 체계적,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경험을 의미하고, '예술적 전문성'은 발레를 감성적, 이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경험을 의미하며, '심성적 전문성'은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인간적으로 대하는 태도와 신념을 의미한다.

나아가 발레 무용수의 전문성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친 전문성의 발달을 제시하였는데, '기술적 전문성 습득단계'는 기본적인 무용기능과 테크닉을 습득하여 한명의 무용수(a dancer)로 성장하고, '독자적 전문성 모색단계'는 무용수로서 자신의 신체와 움직임을 자각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담아내기 위한 해석과 표현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보유한 무용수(the dancer)로 발돋움하게 되며, '창의적 전문성 탐색단계'에서는 뛰어난 무용수이자 안무가(unique dancer)로 성장하며 무용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애령, 석지혜, 임정신, 오현석, 2011).

개념 자체는 다르지만 하위 요소가 유사한 경우도 있었다. 발레 정신은 "오랜 시간동안 발레를 체험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내면적 측면으로, 발레의 핵심을 이루며 발레의 존재를 결정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내적 가치"로 정의되고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영성적 차원으로 구분되었다(최의창, 홍애령, 김나이, 2012). 신체적 차원은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포지션과 테크닉, 과학적, 해부학적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인지적 차원은 발레를 둘러싼 역사, 철학,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감성적 차원은 발레동작과 음

악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탐구를 바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영성적 차원은 발레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이상향을 추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한 마음가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무용 및 발레 역량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역량의 개념 규명보다는 하위 요소를 구분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각 연구자별로 주목하는 개념의 하위 요소와 세부 요소들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신체 및 기술(테크닉), 지식, 감성, 인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구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2. 예술, 무용 및 발레 연구에서의 역량 구분

저자 개념	하위 요소				출처	
	몰입	감성	모방	미적성찰		
예술 역량	호기심, 열정, 목표, 지적수준, 통찰력	감성적 지각, 신체성, 표현력, 경험	모사, 연습, 재창조, 응용, 노력	수용력, 비평력	김정숙, 이병준(2009), 이병준, 김정숙(2009)	
무용역량	신체 역량	전문성 역량	인성 역량	환경 역량	이슬기(2019)	
	신체조건 체력 및 관리	기능수행 창의성 무용사고력 표현 및 소통능력	사회성 태도 무용사랑	경제력 인맥 및 경력		
전문 무용역량	무용인성	무용기능수행	무용지식확장	무용창의	무용실전수행	이윤경(2016), 임은주, 김대진(2018)
	예절과 배려 경쟁과 성장 무용사랑	신체관리능력 음악해석능력 기초실기능력 전공실기능력 표현능력	통합이해능력 지식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상징화능력 무용사고력 실험시도능력	심리조절능력 무대적응능력 관객소통능력	
무용 감성역량	인식		조절		차은주, 안병순(2017b)	
	감성인식	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		
	자기감정인식, 자기인식, 자기평가, 자기주장(타인감정인식, 조직적 인식, 의사소통, 팀 정서이해, 팀 자기평가)	개념화, 공감, 현실검증, 시스템사고(대인관계)	자기통제, 자기관리, 몰입, 성실성, 영향력, 신뢰성, 낙관성, 자기공정, 자아실현역량, 충동조절, 스트레스인내력, (타인육성, 리더십)	적응성, 성취지향성, 영향력, 리더십, 유연성, 주도성, 융통성, 독립성, 자신감, 혁신성, (다양성관리, 갈등관리, 유대적 관계, 팀워크 및 협동, 코칭 및 멘토링, 문제해결, 대면하기, 행동돌보기, 긍정적 분위기, 친근한 분위기, 외부적 관계구축, 서비스지향, 사회적 책임, 변화추진)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 핵심역량	목표	지식	기능	태도	정은정(2017)	
	잠재력 개발, 소통능력,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 소양, 창의적인 표현능력, 미적 감수성, 창의적인 사고, 공동체성	경험적 지식, 문화예술지식과 사회와의 상호성, 동작성, 무용지식, 창작	공간감, 신체감각개발, 리듬감, 문제해결능력, 상상력, 소통하기, 표현하기, 잠재력, 심미성	자발성, 공감 및 소통, 적극성, 공동체성 및 사회성, 창의적인 태도, 미적 감수성, 개방성, 유연성		

저자 개념	하위 요소			출처
	지식	기술	태도	
무용 문화적 역량	전인교육, 바른교육 사회성 무용예술교육 전통성 아름다움(미적능력) 전문성, 프로그램 개발	신체표현, 표현성 창의성, 창작활동 감성적 능력 다양성	대중성, 사회성 수용성, 포용성 다양한 교수법 책임의식 삶의 질 향상	이강순(2008)
	발레 전문성	예술적 전문성(발레소양) 인문적 지식 예술적 감성	심성적 전문성(발레심성) 인내, 배려, 존중, 공정, 사랑	
발레 정신	신체적 차원 인지적 차원 감성적 차원 영성적 차원	신체적 지식 테크닉 지식	신체적 차원 인지적 차원 감성적 차원 영성적 차원	최의창, 홍애령, 김나이(2012)
	신체적 차원 인지적 차원 감성적 차원 영성적 차원	포지션, 테크닉, 기교(기술관련) 신체 인식, 과학적, 해부학적 지식(신체관련)	역사, 철학, 고전예술양식 (문화관련) 해석력, 표현력(감정, 정서)(동작관련) 음악성(음악관련)	

### 3. 발레 역량의 개념화를 위한 시사점 및 이론적 규명

문헌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발레 역량의 개념을 잠정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몇 가지 전제사항을 상정하였다. 첫째, 무용 역량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무용 장르별 역사와 배경, 동작의 특이성과 테크닉의 발전 및 운영원리에 차이가 있기에 타 무용 장르와 차별화된 발레 역량의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발레 역량의 개념 정의 및 이론적 수준에서의 하위 요소 구분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두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한 이유는 다수의 무용 역량 선행연구에서 비슷한 역량 요소들이 각 연구자의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범주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무용 역량이라는 명칭 하에 너무도 상이한 하위 요소의 제시는 현장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그 원인으로 ‘무용’이라는 큰 개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다양한 무용 전공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 유추하였다. 무용 장르별 역사적 배경과 동작 및 기술의 원리 등이 상이하므로 중요시하는 역량의 개념 및 요소 또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발레 역량은 사회적,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역량의 4가지 요소(KSAOs: knowledge, skill, ability, other characteristics)를 고려하면서도 ‘발레’라는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역량의 구현이 요청된다.

일례로 발레 역량의 하위 요소로 ‘신체 및 기술 요소’에는 더욱 구체화된 개념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 및 기술 요소에 포함될 ‘발레 스탠스(Ballet stance)’는 ‘발레 양식적으로 움직일 최종 준비가 된 기본자세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개념인 ‘정렬(alignment)이나 ‘배치(placement) 등과의 차별성, 즉 ‘발의 자세’,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취하는 자세’ 뿐만 아니라 ‘정신적 태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박재홍, 2012). 발레 역량의 신체 및 기술 요소는 신체적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태도와 호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Lawson, 1975). 일찍이 발레의 기본 포지션과 발의 자세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Blasis(1968)는 「무용예술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기초 논문」(An elementary treatise up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art of dancing)에서 발레 동작의 테크닉을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적인 발레지식 및 이론들이 발레 역량을 구체화하고 하위 요소별 개념을 제시할 때에 구체적으로 정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해 예술, 무용 및 발레 역량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전제사항에 기초하여 발레 역량의 개념 및 하위요소를 이론적 수준에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레 역량의 개념은 “발



레를 유능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잠정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발레라는 무용 장르를 포함하며 역량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른 것이다.

둘째, 발레 역량의 하위 요소는 문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및 기술, 지식, 감성, 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예술, 무용 및 발레 역량의 개념은 하위 요소들을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기술, 지식, 태도의 3가지 요소와 인성, 창의성, 영성 등과 같은 1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네 가지 요소들을 규정하는 하위 요소의 명칭은 보다 체계적이며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새롭게 명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론적인 수준에서 발레 역량의 4가지 하위요소를 ‘발레신체 및 기술’, ‘발레지식’, ‘발레감성’, ‘발레인성’으로 잠정적으로 명명하였다면,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후행되어 독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IV. 결론 및 제언

한국 발레의 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도래한지 오래이다. 이때의 수준은 바로 발레 역량을 의미한다. 발레 무용수들의 뛰어난 기량, 기술, 예술성 등을 총망라하고 통합한 개념을 발레 역량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무용수 및 안무자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에도 발레 역량을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용수의 양성과 선발에 적용한 사례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내에서 교육학, 심리학 등에서 주목받고 있는 역량 개념부터 무용 및 발레 연구에서 진행된 역량 개념을 살펴보고 발레 역량의 개념 규정을 위한 체계적 문헌 분석을 시행하였다. 핵심 문헌으로 총 20개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검토한 결과, 발레 역량의 개념화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전제하였다. 첫째, 무용 역량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무용 장르별 역사와 배경, 동작의 특이성과 테크닉 발전 및 운영원리에 차이가 있기에 타 무용 장르와 차별화된 발레 역량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발레 역량의 개념 정의 및 이론적 수준에서의 하위 요소 구분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결과 이론적 수준에서 발레 역량의 개념과 하위 요소를 제안하면 첫째, 발레 역량의 개념은 “발레를 유능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잠정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발레라는 무용 장르를 포함하며 역량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른 것이다. 둘째, 발레 역량의 하위 요소는 문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및 기술, 지식, 감성, 인성으로 구분하였다.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예술, 무용 및 발레 역량의 개념은 하위 요소들을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기술, 지식, 태도의 3가지 요소와 인성, 창의성, 영성 등과 같은 1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네 가지 요소들을 규정하는 하위 요소의 명칭은 보다 체계적이며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새롭게 명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론적인 수준에서 발레 역량의 4가지 하위요소를 ‘발레신체 및 기술’, ‘발레지식’, ‘발레감성’, ‘발레인성’으로 잠정적으로 명명하였다면,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후행되어 독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레 역량의 체계적, 과학적 검증 및 지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실천 및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발레 역량의 규명을 위한 현장 연구가 필요하다.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발레 역량의 개념은 이론적 수준에서 지침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발레 무용수 및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발레 역량의 하위 요소 범주화, 척도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발레 역량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발레 교육과정의 재검토가 요청된다(홍애령, 2015; Gaston, 2017; Foster, 2010). 발레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발레 기술 연습과 레퍼토리, 작

품의 시연을 넘어 움직임에 얽힌 다양한 주제와 방법론을 찾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이 요구된다. 발레지식을 바탕으로 실기연습에 적용하고 나아가 작품 창작과 무대 구성을 창의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발레 전문인으로서 공연예술, 문화예술교육, 전문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기 중심 학습 외의 다양한 교수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전문무용수에게도 단순한 실기 연습의 반복보다는 토론과 대화를 통한 협력학습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수의 연구자에게 강조되어 왔다(Butterworth, 2004; Lavender, 1996; Warburton, 2004). 그러므로 대학의 실기 수업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몸과 움직임을 통해 독특한 개성을 찾아내고 경험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Bracey, 2004; Leijen et al., 2008).

넷째, 전문무용교육으로서 신체와 움직임에 관한 차별화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발레를 통해 자신의 몸을 다스리고 단련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Cohen, 1993; Fortin, Long & Lord, 2002; Kovich, 1994). 이처럼 발레 역량의 개념화와 체계적 검증을 통해 현행 초·중등학교 및 전문 발레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점검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가를 양성하는 발레교육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5a). 예술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22].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5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세종: 교육부.
- 구희영(2015). 관객은 왜 감동하는가? : 발레공연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지, 15(1), 13-28.
- 김경영(2007). 한국 발레의 연구경향과 학문적 과제. 한국스포츠리서치, 18(6), 975-986.
- 김동곤(2008). 국내 발레교육 연구에 관한 동향 분석. 한국미래춤학회 연구논문집, 15, 1-20.
- 김은혜, 김지영, 권재운(2018). 의사결정계층(AHP)분석을 활용한 학교무용의 교수역량 평가지표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2), 715-729.
- 김정민(2007). 발레교육의 역사적 흐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숙, 이병준(2009). 무용(교육)에서 요구되는 예술적 역량 척도요인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28, 19-35.
- 김지안(2017). 직업발레무용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의 발레교육 발전방안.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김혜련, 최창환(2018). 대학 한국무용 교수자의 강의역량 탐색: 네트워크 기반 의미연결망 분석의 적용. 한국무용과학회지, 35(3), 59-72.
- 문영, 서예원(2018). 융합형 무용교육자의 개념과 역량 탐색. 무용예술학연구, 69, 29-41.
- 문치빈(2007). 발레연구동향 분석. 대한무용학회논문집, 52, 109-130.
- 박재홍(2005). 취미 발레수업 참여자의 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43, 163-174.
- 박재홍(2007). 발레관객의 특성 이해를 통한 잠재관객 확대방안. 한국무용과학회지, 14, 15-28.
- 박재홍(2012). 발레 스탠스의 목적과 단계별 수행. 무용역사기록학, 25, 1-17.
- 백종면(2014). 교과교실제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체계적 문헌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7), 255~279.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송혜순, 황명자(2017). 예술교육 전문가로서 핵심역량과 미래 무용교육의 실천적 방안. 무용역사기록학, 46, 113-134.
- 안형식, 김현정(2014). 체계적 고찰 연구의 개요. J Korean Med Assoc, 57(1), 49-59.
- 위미나, 이병준(2008). 독일에서의 문화적 역량 담론 연구. 한국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4, 9-32.
- 윤정일, 김민성, 윤순영, 박민정(2007).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233-260.
- 이강순(2008). 무용에서의 문화적 역량. 문화예술교육연구, 3(2), 135-161.
- 이병준, 김정숙(2009). 무용수가 인지하는 예술적 역량 연구. 예술교육연구, 7(2), 1-10.

- 이수연(2018). 무용학 학위논문에 나타난 발레 연구 동향 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3), 133-151.
- 이슬기(2019). 무용수의 역량에 대한 무용전공 대학생의 인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옥선, 최의창, 정현수, 윤기준(2017). 체육교사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 활동에 관한 체계적 문헌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4(3), 1-23.
- 임은주, 김대진(2018). 중·고등학교 무용전공 희망학생들의 전문무용역량에 관한인식 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1), 209-233.
- 정은정(2017).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 핵심역량의 경험적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차은주, 안병순(2017a). 무용 감성역량 모델 개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6(4), 537-550.
- 차은주, 안병순(2017b). 지식기반사회에서 무용 인적자원의 역량 증진 전략. *한국체육학회지*, 56(3), 513-526.
- 최의창, 홍애령, 김나이(2012). 발레교육의 내용으로서 "발레정신"의 개념과 구성요소.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3), 47-67.
-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11). *NECA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홍애령(2013). 뛰어난 발레교육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발레교수전문성의 발달과정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홍애령(2014). 발레교수전문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3(6), 191-206.
- 홍애령(2015). 전문 발레교육자의 성장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발레교수전문성의 발달과정 탐색. *무용역사기록학*, 36, 327-350.
- 홍애령, 박재근, 도소이, 전은수(2019). 대학 발레 연구동향 및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전문적 모형(PM)의 실천적 적용방안 탐색. 2019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54.
- 홍애령, 석지혜, 임정신, 오현석(2011). 무용수의 전문성 발달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23, 175-193.
- 황인주(2012). 무용공연에서 무용수의 미적 기능에 관한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27, 151-165.
- Bailey, R., & Pickard, A. (2010). Body learning: Examining the processes of skill learning in dance. *Sport, Education and Society*, 15(3), 367-382.
- Blasis, C. (1968). *An elementary treatise up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art of dancing*(Translated by Mary S. Evan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Bolton, T., & Hyland, T. (2003). Implementing key skills in further education: Perceptions and issues.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27(1), 15-26.
- Bracey, L. (2004). Voicing connections: An interpretive study of university dancers' experiences. *Research in Dance Education*, 5(1), 7-24.
- Butterworth, J. (2004). Teaching choreography in higher education: A process continuum model. *Research in Dance Education*, 5(1), 45-67.
- Cohen, B. B. (1993). *Sensing, feeling and action*. Northampton MA: Contact Editions.
- Cohen, L., Manion, L., & Morrison, K. (2011).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Abingdon, Oxon: Routledge.
- Fortin, S., Long, W., & Lord, M. (2002). Three voices: Researching how somatic education informs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classes. *Research in Dance Education*, 3(2), 155-179.
- Foster, R. (2010). *Ballet pedagogy: The art of teaching*.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 Gaston, M. Z. (2017). *Ballet pedagogy: A conceptual approach to teaching classical dance*. San Bernardino, CA: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 Jackson, J. (2005). My dance and the ideal body: Looking at ballet practice from the inside out. *Research in Dance Education*, 6, 2540.
- Kovich, Z. (1994). From intention to action: Somatic education and the dancer. in Schiller, W. & Spurgen, D. (Eds.). *Kindle the fire: proceedings of the 1994 Conference of Dance and the Child International*(pp.208-216). Sydney: MacQuarrie University.
- Lavender, L. (1996). *Dancers talking dance: Critical evaluation in the choreography class*.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Lawson, J. (1975). *Teaching young dancers: Muscular co-ordination in classical ballet*. New York: Theater Arts Books.
- Leijen, Å., Lam, I., Simons, P. R. J., & Wildschut, L. (2008). Pedagogical practices of reflection in tertiary dance education.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4(2), 223-241.
- Lewis, S. J., & Orland, B. I. (2004). The importance and impact of evidence-based medicine. *J Manag Care Pharm*, 10(5), S3-5.

-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 1-14.
- Mirabile, R. J. (1997).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competency modeling. *Training and Development*, 51(8), 73-77.
- Noice, H., & Noice, T. (2006). Artistic performance: Acting, ballet, and contemporary dance. In K. A. Ericsson, N. Charness, P. J. Feltovich, & R. R. Hoffman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expertise and expert performance*(pp. 489-503).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on, P., & Rodgers, W. (2000). Learning and remembering strategies of novice and advanced jazz dancers for skill level appropriate dance routine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1(2), 135-144.
- Rychen, D., & Slaganik, L.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Ureña, C. A. (2004). *Skill acquisition in ballet dancers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berate practice and experti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 Warburton, E. C. (2004). Knowing what it takes: The effect of perceived learner advantages on dance teachers' use of critical-thinking activities. *Research in Dance Education*, 5(1), 69-82.
- White, R.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79-333.

## ABSTRACT

## A Systematic Literature Analysis for the Conceptualization of Ballet Competency

Park, Jae-Hong *Hansung Univ.* · Hong, Ae-Ryung *Sangmyung Univ.*

This study conducted basic research for the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 of ballet competency as fundamental concepts for the education, selection and developing professionalism for ballet dancers and students. Ballet, which is considered the leading genre in popularization of dance, considers the physical abilities and excellent techniques of the dancers as skills. Therefore, studies on dances are largely based on the performance and high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techniques and methods related to dance performances. For this reason, there are little studie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on the concept of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ballet dancer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basic research for the conceptualization of ballet competencies as a systematic literature analysis that identifies the implications and premises based on the concepts of competencies in art and dance.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conceptualization of ballet competencies and the subcategories (ballet body and techniques, ballet knowledge, ballet emotions, ballet character) on a theoretical level, and suggests the need of a systematic and scientific approach.

**Key words** : ballet, competency, ballet competency, dancer, professionalism

논문투고일: 2019. 09. 06

논문심사일: 2019. 10. 08

심사완료일: 2019. 10. 19